

# 생약제제 수입 연 1천톤 추정

원가부담 감소 이유로 제약사 엑스제 선호 추세  
수급조절용 생약제제 반입량 95년비 3~4배 증가

<1면에 이어>

수입엑스제 사용이 늘어 가면서 황기, 당귀, 천궁, 작약등 국산 주요 약재 시세가 급락, 판로를 잃고 산지에 재고로 쌓여 있는 실정이다. 국산약재의 시세폭락과 재고누적 현상은 지난 92년 이후 엑스제와 식품원료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해오다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지난 93년 근당(6백g 기준) 8천2백원선이던 강황이 4천원(98년 4월 기준) 대로 1만 2천원선(93년) 이던 두충이 4천원(98년 4월) 대로 폭락했다. 황기도 93년 1만2천원(1년근 절) 시세에서 3천원(98년 4월 절) 으로, 7천원선(93년)이던 천궁도 98년 4월말 현재 4

천원선으로 값이 떨어졌다. 문제는 바닥선까지 떨어진 가격에도 매기가 없는 것. 국산한약재의 이같은 가격 폭락 원인은 소비부진으로 국산 생약의 판로가 여의치 않은데다 재배면적이 확대된 때문도 있지만 제약회사의 '생약엑스제' 수입증가와 식품으로의 무분별한 반입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사들의 엑스제 선호 추세는 분리기술의 발달로 생약의 지표성분 가격이 싸지자 생약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원가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일부 제약사들 경우 현지에 자체 합작공장을 설립해 엑스제제를 추출 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생약제제의 경우

함유성분의 함량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2가지 주성분만 확인토록한 품질관리의 허점을 이용, 이들 성분만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지표성분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약제제는 특정 지표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한방 특유의 복합성분에 의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약 대신 표준품만 사용하는 것은 유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한약재와 달리 엑스제 반입과정은 품질 검증체제가 전무한 실정이라서 안전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 또한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생약업계 관계자들은 또 "건재와 달리 생약재의 경우 장기간 유통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몇 달이고 장기 유통되는데는 방부제 등 기타 유해성 여부 미확인 성분들이 생약엑스제에 다량 함유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

황기, 당귀, 작약, 천궁 등 10여가지 한약재로 만들어진 '십전대보탕'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도야마 의약대 한약연구소 사이키 교수의 생쥐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사이키교수는 이 실험에서 생체방어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매크로파지라 불리는 세포집단이 전이하려는 암세포를 공격, 이를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 이제제는 부작용도 없는데다 이 억제효과가 커 임상응용도 검토되고 있다.

## '십전대보탕' 암세포 전이 방지 생체방어세포 암활성화 억제

일 도야마 의약대 사이키 교수 연구

십전대보탕은 10종의 생약을 조합한 한방약으로 주로 병을 앓은 후 기력을 회복하는데 쓰이는 약제다. 사이키 교수는 면역기능을 높이는 이 약의 효과에 착안, 암의 전이 억제에 응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 97년부터 생쥐실험을 해왔다.

실험은 십전대보탕을 1주일동안 계속 투여한 생쥐 6마리와 전혀 투여하지 않은 생쥐 6마리등 2그룹으로 나눠 고 전이성 암세포를 양 생쥐에 주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6마리는 모두 종양의 전이가 확인, 간장이 팽창된데 반해 십전대보탕을 40mg씩 투여한 생쥐에서는 암세포의 결절이 거의 생기지 않았으며 체중감소와 탈모등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고전이성 암세포를 주사한 다른 생쥐 6마리에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결과 전이 억제효과는 보였으나 6마리 가운데 3마리가 부작용으로 3주만에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약 규격화 시행으로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5백 14종 전 한약재가 관리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를 거치게 되지만 생약 엑스제의 경우는 유독 품질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제약사들의 생약제제 제품화가 날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통관과정에서 수입엑스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품질검증 시스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엑스제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 생약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수급조절품목에 해당되는 생약엑스제 만이라도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이 높다.

〈문정희〉

### <주요 한약재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1,600g)

	93년	95년	97년	98년(4월 시세)
강 활	8,220	5,630	5,300	4,000
당 귀	5,780	4,800	5,200	2,500
두 총	12,280	9,920	6,300	4,000
향 부	2,100	1,990	1,600	1,500
황 기	11,530	7,500	5,800	3,000
천 마	25,750	19,670	11,900	11,000
천 궁	7,030	6,930	4,900	4,000
치 자	8,400	6,670	1,100	900

### 이것이 문제다

## 밀수황금 시장범람

대구도매시장등에서 버젓이 공매거래 전남 여수 남면 생산농민들 대책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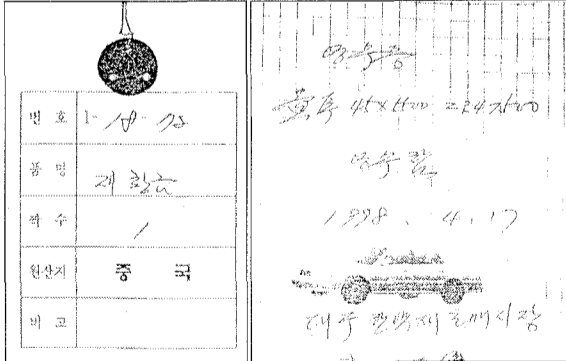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황금이 시중 약재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황금은 생산자보호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

황금 주산지인 전남 여수 생산농민들은 최근 탄원서를 통해 "밀수된 중국산 황금이 대구도매시장과 영천시장 및 전국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생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따리 물건으로 유입된 물량이 약재로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줄것"을 호소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황금하고 육안으로 구별이 안될 만큼 비슷한 수입 황금이 근당(6백g 기준) 4천원에 유통되고 있어서 7천원씩 주고 국산황금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보따리 물건으로 유입돼 시중 유통되는 황금은 국산 유통물량의 약 3배에 이를 것이라 분석이다. 제기동 경동약령시장에서도매업을 하는 한 상인은 "수입황금의 경우 지방 도매시장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데 국산 한 짝 주문 들어올 때 수입은 세짜 정도 나가는

### ◀ 대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황금 영수증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 황금생산량은 4백44톤으로 전남 일원에서만 4백30여톤이 생산됐으나 아직 절반도 출하되지 못하고 산지에 남아있는 형편이다.

여주시 남면 농협 지점장 김인수 씨는 "농가들로부터 97년 황금 생산량 80톤(생근)을 수매했으나 판

로가 없어 아직까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해열제로 복용 설사, 식욕부진 등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황금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입산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약초로, 전남 일원에서 매년 파종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농가소득 작목이다. 그러나 한약재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수급조절품목임에도 이처럼 대구도매시장 등에서 버젓이 공매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문〉